

김지연 "전 남친에 명의 빌려줬다 10억 빛"

등록 2026.05.21 13:49:34



[서울=뉴시스]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지연이 10억원대 빚을 떠안았던 사연을 고백한다. (사진=KBS) 2026.05.21. 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지연이 10억원대 빚을 떠안았던 사연을 고백한다.

22일 오후 7시40분 방송되는 KBS 1TV '황신혜의 같이 삼시다'에는 김지연이 출연한다.

김지연은 이날 방송에서 배우 이병헌의 동생이자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은희와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다. 그는 이은희의 영향으로 미스코리아 대회에 도전하게 됐다고 털어놓는다.

이혼 후 홈쇼핑 업계에 뛰어난 김지연은 연 매출 약 700억원을 기록하며 경제적 자립에 성공한 바 있다.

하지만 몇 년 전 전 남자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로 약 1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고백한다.

김지연은 이후 생계를 위해 택배와 음식 배달 일까지 했다고 밝힌다. 그의 사연을 들은 황신혜는 "보통 여자가 아니다"라고 말했다.

김지연은 배달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겪으며 보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, 이를 계기로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다고 전한다.

방송에서는 김지연과 황신혜의 1대1 보험 상담도 공개된다. 상담 과정에서 황신혜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여러 건 가입돼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